

# 삼성·LG, 실적반등 성공... 반도체·B2B로 상승세 이어간다

**삼성** 영업익 6.6조... 전년 동기 10배 증권, 연간 영업익 40조 이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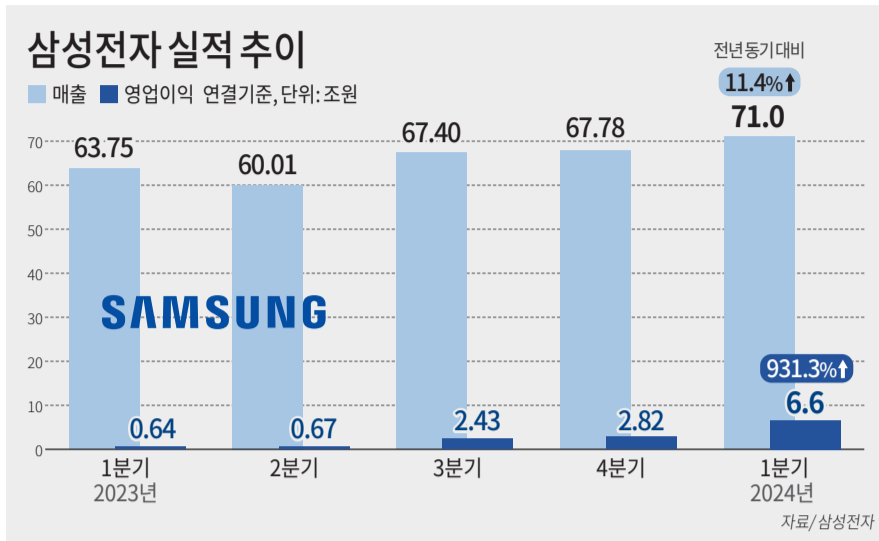
**LG** 4개 분기만에 1조대 영업익 회복 B2B 중심 사업체질 개선 본격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해 1분기 나란히 실적반등에 성공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배 이상의 영업이익을 냈다. LG전자는 B2B 사업을 앞세워 4개 분기 만에 1조원대 영업이익을 회복했다. 두 회사는 각각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HBM(고대역폭메모리)과 B2B를 통해 2분기에도 실적 호조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삼성, 반도체·모바일 실적 이끌**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5일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올 1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71조원, 영업이익 6조 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 63조7454억원, 영업이익 6402억원 대비 각각 11.4%, 931.3% 급증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 메모리 반도체에서만 2조원 이상 흑자를 기록해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합친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서 1조원 후반대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HBM 등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 판매에 주력한 것도 반도체 사업 흑자 전환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김복호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영업이익이 추정치를 대폭 상회 요인은



메모리 부문의 펀더멘털뿐만 아니라 재고평가 환입 규모가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모바일경험(MX) 부문도 1분기 실적을 견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S24 시리즈 판매 호조 등으로 스마트폰 출하가 늘고 있기 때문. 지난 1월 말 출시된 갤럭시 S24 시리즈는 출시 28일만에 100만대 판매를 돌파했으며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 국내 판매 신기록을 세웠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스마트폰 출하량은 5700만대로 전 분기 대비 8% 증가하고, 평균판매단가(ASP)는 340달러로 30%가량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LG전자, B2B·프리미엄 가전 순항**  
LG전자는 역대 1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영업이익도 5분기 연속 1조 원을 돌파했다.

LG전자는 올 1분기 연결기준으로 연결기준 매출액 21조959억원, 영업이익 1조3329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1조4974억

원) 대비 11% 감소, 전분기(3131억원) 대비 325.7% 증가했다. 매출액은 전분기(23조1041억원)보다 8.7% 감소했지만 1분기 매출액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LG전자는 B2B와 전장사업 등이 실적을 이끌었다. B2B에 해당하는 냉난방공조시스템(HVAC), 빌트인, 부품솔루션 등의 수익 확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생활가전 사업은 1분기 출시한 의류관리기 '올 뉴 스타일러', 올인원 세탁건조기 '워시콤보', '워시타워' 등 프리미엄 신제품도 순항 중이다.

신성장동력인 전장(차량용 전기·전자장비) 사업의 경우 그동안 확보해 온 수주잔고가 점진적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주잔고는 지난해 말 90조원대 중반에서 올 상반기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전장 부문은 영업이익이 6600억원에서 5000억원대로 줄었지만, 매출은 2조3870억원에서 2조6000억원대로 올라선 것으로 분석된다.

LG전자는 "가전 구동 등 새로운 사업 방식을 도입하고, 추가 성장 기회가

큰 B2B 사업을 확대한 것이 시장 수요 회복 지연 등의 불확실성을 돌파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AI 성능을 대폭 강화한 TV 사업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제품 판매 대비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는 webOS 플랫폼 사업도 시장 호응을 끌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2분기 반도체 업황 개선...영업익 40조 예상**

삼성전자와 LG전자는 AI관련 반도체와 B2B 수요에 적극 대응해 2분기에도 실적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이 40조원을 넘길 수 있다고 예상한다. D램에 이어 낸드플래시까지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데다 최근 출시를 시작한 AI 가전 판매로 수익성을 올리며 실적 개선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메모리 시장 거래가격이 인상되면서 반도체 분야의 수익성도 커지고 있다. D램익스체인지에 의하면 PC용 D램 범용제품(DDR48Gb)의 경우 올해 3월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1월 가격(1.80 달러)을 유지했다. 4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보이던 유지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업황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다. 낸드플래시 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꾸준히 상승하며 4.90 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메모리 업황 개선에 따라 삼성전자는 메모리 부문 영업익은 27조원의 손익 개선을 하고, 3분기부터는 12단 HBM3E 출하를 시작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실적컨퍼런스콜에서 인공지능(AI) 관련 고대

역폭 메모리(HBM) 서버와 SSD 수요에 적극 대응해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LG전자, B2B·전장사업 28% 증가 예상**

LG전자는 올해 AI 관련 B2B 사업과 전장사업에 집중해 실적을 이끌 방침이다. KB증권은 올해 LG전자의 B2B 매출 비중이 약 28% 늘 것으로 분석하고 전사 실적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LG전자는 최근맘모그래피(유방촬영영상)용 모니터를 비롯한 진단용 모니터 풀라인업을 앞세워 B2B의 료기기 사업 공략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미래 지향적 사업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장사업의 경우 지난해 95조원 수주잔고를 기록한 데 이어 올 상반기 100조원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흑자전환한 LG마그나 이퍼워트레이너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서 수주 확대에 나선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가전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볼륨존 제품의 출하 증가는 B2C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동시에 북미, 유럽 중심의 B2B 수요도 견인할 것"이라며 "LG전자의 이익 기울기는 가전 사업의 이익 증가 폭과 전장부품 실적 개선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의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홀엔터테인먼트 수익성 개선을 비롯해 전장 사업의 추가적인 수주 성과가 점진적 사업 체질 개선을 이끌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여전한 고물가... 가계부채 우려... "금리인하 늦어질듯"

금통위, 주중 통화정책방향 회의 농산물·휘발유 등 물가상승률 높아 시장선 10회 연속 금리동결 전망

한국은행이 오는 12일 기준금리(연 3.50%)를 동결할 지, 조정할 지를 논의한다. 시장에선 물가가 여전히 높고, 금리를 인하할 경우 가계부채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하면 10번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번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은 2020년 5월 연 0.50%였던 기준금리를 연 3.50%까지 인상한 뒤 동결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은이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금리인하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2022년 7월 6.3%까지 치솟은 뒤 올해 1월 2.8%로 둔화했지만, 2월부터 과일·채소 등 농산물가격과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3월까지 두달 연속 3.0%를 웃돌았다. 여



7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되고 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2주 연속 올랐다. /뉴시스

기에 가계대출 증가세로 기대만큼 꺾이지 않아 기준금리를 서둘러 낮출 명분이 약하다는 분석이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물가점검 회의에서 "물가상승률은 추세적으로 둔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가와 농산물 가격 움직임에 따라 매끄럽지 않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물가 목표 수렴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향후 물가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가계부채도 금리인하 시

를 더디게 하는 요소다.

은행권 가계대출(정책 모기지론 포함)은 지난 2월 기준 1100조 3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4월 2조3000억원 늘어난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시점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도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전망에 힘을 실고 있다.

현재 연준 인사들은 금리인하시점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금리인하방침을 재확인하며 비둘기파(통화완화 정책 선호)적인 행보를 보인 반면,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는 "인플레이션 고착 시 연내 금리인하가 불필요하다"며 매파적(통화긴축 정책 선호) 시각을 보였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도 금리인하 가능성이 뚜렷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 첫 금리인하 시기로 예상된 6월을 살펴보면 금리인하 확률은 50.8%로 금리 동결과 인하 방향이 뚜렷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0차례 연속 동결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과 안정적 수요를 바탕으로 미 연준의 첫 금리인하 시점이 6월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한은의 경우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을 고려할 때 물가가 목표 수준(2.0%)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2분기 중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KDI '4월 경제동향' "IT산업 중심 수출 증가 경기부진 누그러들어"

반도체 등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며 경기 부진이 완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하지만 민간 소비 등 내수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제유가 상승이 세계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꼽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4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있으나 수출이 정보통신(IT) 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글로벌 반도체 경기반등에 따른 높은 수출 증가세로 인해 경기 부진이 누그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고금리 기조가 지속돼,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등 상품소비를 중심으로 소비가 부진하다는 견해를 냈다.

내수경기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소비가 상품소비의 위축이 지속된 가운데, 서비스소비도 낮은 증가세를 나타내는 등 전월의 부진한 모습이 유지된 점을 꼽았다. 세계경제에 대해서는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유가상승과 운송 차질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봤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